



<수해를 당한 북인도 비하르주 방기(Bhangi Village)마을로 가다 >



지난 8월 14일 Araria Behar 에 내린 비로 인해 대피하는 주민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곳을 방문하기로 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야 했습니다. 한 차에는 구호 식품을 가득 싣고 또 한 차는 저희 일행이 나누어 승차했습니다. 같은 비하르주지만 파트나에서 네팔 국경까지는 차로 6시간 소요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꽤 신나게 달렸지만 현상이 가까워지자 차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한 우리는 오후 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피해가 더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구호식품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



우리가 도착 했을 때는 이미 홍수가 지나간 잔해들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지만 우리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환영 받으러 온 게 아닌데...’

‘함께 진창에 털썩 주저 앉아 손을 잡아 주고 싶었는데...’

환영을 받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경황에 무슨 춤을..’ 네팔 의상과 네팔 댄스로 환영하는 중학교 아이들



재난 가운데서도 손님을 접대하는 이들의 문화는 감동이었습니다
집 벽들은 흙이 비에 다 쓸려가고 나무 받침대만 남아 안이 흰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올텐데 이곳은 북쪽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 국경이라 무척 추운 날씨인데 대부분의 집들은 보수는 커녕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빈손을 채워 줄 수는 없을까?’



짠한 마음을 안고 다시 6 시간 반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외부 사람이 찾아간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이었을 것 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식품보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시간을 머물기 위해서 13 시간의 긴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9 월 3 일〉 인천에서 7 시간 만에 인도 델리공항에 도착해서 약 3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이드라바드로 가는 항공편으로 환승해서 자정이 되어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GBM 인도법인 파트너인 윌리엄씨와 함께 새로 마련한 GBM R&D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곳 감리교 감독(Bishop) 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Bishop Daniel & His wife 〉

〈1953 년에 세운 교회〉

인도 감리교의 교인 수는 1 백 50 만명 인데 감독(Bishop) 은 모두 6 명 이라 했습니다.

Daniel 씨는 그 중 1 명이며 2 개 주 산하에 300 개 교회와 200 개의 학교, 병원 등 모두 500 개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감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두들 무엇을 했던 말인가?’

저는 선교사 파송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aniel 씨도 기뻐하며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음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에 선교단체가 세워져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필드에서 함께 동역하는 꿈을 꾸면서 기도 했습니다.

‘3억3천의 우상들이 난무하는 척박한 인도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세워진다면…’

국교같은 힌두교에 억압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Platform 이 세워진다면…’

“주의 빛을 이 어두운 땅을 향해 비취 주소서 “

채종욱/박동희 드림

www.binchae.org